

2021년 가을 학기
전시간 훈련 메시지 개요

전체 주제:

로마서 5장부터 8장까지 --

성경의 핵심

메시지 6

천연적임과 개인주의와 분열적임에서 생명 안에 구원받음

성경: 고후 3:15-18, 빌 4:6-7, 행 9:1-17, 요 17:6-24

- I. 우리는 천연적임에서, 우리의 타고난 기질에서 생명 안에 구원받아야 한다. 우리는 계속해서 영광의 주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봄으로써 “동일한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에 이룸. 이것은 주 영에게서 비롯되는” 매일의 과정 안에 있도록 우리 자신을 지킨다 — 시 27:4, 고후 3:15-18.
- A. 우리의 타고난 기질은 우리의 자아이다. 우리의 타고난 기질은 우리 안에 있으며 그것이 우리 자신이다. 실지적으로 말해서 자아를 부인하는 것은 다만 우리의 타고난 기질을 부인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인들로서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영을 훈련하여 우리의 자아를 거절하고 십자가에 못박히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곧 생명나무로 예표되신 또 다른 생명에 의해 살아야 한다 — 창 2:9, 빌 1:21 상, 계 2:7, 벰전 2:24, 딤후전 4:7-8.
- B. 출생으로 말미암은 것은 무엇이든, 좋든 나쁘든, 유용하든 유용하지 않든, 타고난 것이며 신성한 생명을 우리의 존재 안으로 조성시킴에 있어서 전적으로 성령에 대한 장애물이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의 타고난 힘과 타고난 지혜와 타고난 영리함과 타고난 기질과 타고난 결점들과 타고난 미덕들에 더하여 우리의 성격과 습관들은 모두 반드시 부서져야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새로운 기질, 새로운 성격, 새로운 습관, 새로운 미덕들, 새로운 속성들을 형성하실 수 있다 — 딤후전 3:4-6, 골 3:25-27.
- C. 재조성의 일을 성취하시려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움직이셔서 신성한 생명으로 우리를 비추시고 감동하시고 인도하시며 적시셔야 한다. 그분은 또한 우리를 하나님의 만아들이신 그리스도의 형상과 같은 형상이 되도록 하기 위해 우리의 상황 가운데 있는 모든 세세한 것들과 사람과 항목과 일을 안배하시어 우리의 타고난 존재 안에 있는 모든 방면들을 허물어뜨리시기 위해 우리의 환경 안에서 일하신다 — 롬 8:28-29.
- D. 야곱의 생애는 타고난 사람이 이스라엘, 곧 하나님의 왕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파쇄를 통과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우리의 환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허물어뜨리시는 것은 무가치한 우리의 자아, 우리의 타고난 기질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분 자신, 곧 비할 데 없고 탁월하며 견줄 수 없고 무한한 분이신 그분 자신을 우리 안으로 건축해 넣으신다 — 엡 3:16-17 상, 고전 3:12.
1. 하나님은 야곱이 일생토록 분투하는 생활을 하도록 정하셨다. 하나님은 야곱의 일생 동안 주권적으로 모든 환경과 상황과 사람을 안배하시어 그러한 모든 것이 협력하여 야곱을 위해 선을 이루게 하셨다. 이렇게 하심으로써 빼앗는 사람이며 발뒤꿈치를 붙잡는 사람이었던 야곱이 하나님의 왕자인 이스라엘로 변화되게 하신 것이다 — 창 25:26, 32:24-32.
 2.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룬 사람’(창 32:28)이라는 뜻이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하나님에 의해 하나님의 왕자로 변화되기 위해 하나님과 분투하는 생활이다 — 비교 빌 4:5-7, 11-13.
 3. 변화는 믿는 이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신진대사적인 기능으로서 그리스도의 신성한 생명의 요소가 우리의 존재 안으로 더해져 그리스도의 형상이 외적으로 표현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삭과 리브가와 에서는 야곱을 변화의 ‘화덕’ 안에 넣기 위해 사용되었고, 라반과 야곱의 아내들은 그 화덕 안에서 태우는 ‘불’이었다. 야곱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 속에서 변화의 일을 수행하시기 위하여 그들의 환경에 속한 각 방면들을 주권적으로 안배하신다는 것을 보여준다 — 고후 3:18, 롬 12:2, 8:28-30.

- E.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창 32:30, 고후 3:18, 4:6-7), 그분의 얼굴을 구하고(시 27:8, 4), 그분의 얼굴을 우리가 섬기기 위한 공급으로 누리고(출 25:30, 33:11 상),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도록 그리스도의 얼굴, 곧 그분의 인격 안에서 모든 것을 해야 한다(고후 2:10, 비교 13:14). 삼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으로 분배되실 때 우리는 우리의 은혜이신 삼일 하나님의 얼굴과 우리의 평안이신 그분의 밝은 표정을 갖는다(민 6:25-26).
 1. 하나님을 보는 것은 하나님으로 조성되기 위해 하나님을 얻는 것과 동일하다 — 욥 42:5-6.
 2. 하나님을 보는 것은 우리를 변화시킨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볼 때 그분의 요소를 우리 안으로 받아들이고 우리의 옛 요소가 배출되기 때문이다 — 고후 3:18, 롬 12:2.
- F. 우리는 변화되는 비결(빌 4:12)이신 그리스도, 즉 모든 종류의 환경이나 상황이나 처지에서나 우리의 타고난 생명에 있어서 신진대사적으로 바뀌는 비결이신 그리스도를 배워야 한다. 이러한 실질적이고 단순한 비결은 6절과 7절에 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를 통하여 감사한 마음으로 여러분의 구할 것을 하나님께 말씀 드리십시오. 그러면 사람의 이해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평안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추가 인쇄물 - ‘하나님의 구원의 유기적인 방면’ 63-64 쪽 참조).

II. 우리는 개인주의에서 생명 안에 구원받아야 한다.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흠어진 개인들로서 산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개인주의적인 모든 것이 배제된다. 몸의 생활을 알기 원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죄로 가득한 생명과 타고난 생명뿐 아니라 우리의 개인주의적인 생명에서 구출받아야 한다.

- A. 죄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보는 것을 막고, 타고난 생명은 우리가 몸을 보는 것을 막는다. 우리는 모두 반드시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의 우리의 위치를 보아야 한다. 우리가 몸 안에서 우리의 위치를 참으로 본다면 그것은 마치 우리가 두 번째로 구원을 받는 것과 같을 것이다 — 고전 12:18, 24-25.
- B. 아버지는 세상과 대립하시고(요일 2:15), 주님은 마귀와 대립되시며(히 2:14), 그 영은 육체와 대립되시며(갈 5:17), 몸은 개인과 대립된다(고전 12:21). 일단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을 보면 개인주의로부터 자유롭게 된다. 그는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몸을 위해 살게 될 것이다.
- C. 그리스도의 몸은 교리가 아니라 영역이다. 그리스도의 몸은 가르침이 아니라 생활이다. 오직 계시만이 우리를 몸의 영역과 몸의 실재 안으로 안내할 것이고, 그 후에야 그리스도의 몸이 우리의 체험이 될 것이다.
- D. 자신이 몸의 지체들이라는 것을 보는 이들은 분명히 몸을 보배롭게 여길 것이고 다른 지체들을 존중할 것이다. 그들은 그들 자신의 미덕들만 보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기꺼이 다른 이들을 그들 자신보다 더 나은 이들로 보게 될 것이다.
- E. 몸의 계시가 있는 곳마다 몸의 의식이 있고, 몸의 의식이 있는 곳마다 개인주의적인 생각과 행동은 자동적으로 배제된다. 우리가 몸을 보자마자 우리의 개인주의적인 생활과 일이 중단되며 우리는 몸의 하나라는 명해진 축복 안으로 들어간다 — 시 133:1-3.
- F. 몸의 한 가지 기능은 모든 지체들을 보호하는 것이다(엡 6:10-20, 신 32:30). 고립된 이들은 속임 당하기 쉽기 때문에 우리는 몸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조언을 구함(수 9:14)으로 그분을 존중해야 할 뿐 아니라 몸 안에 있는 동료 지체들에게도 항상 조언을 구해야 한다(행 22:10, 잠 27:17).
- G. 그리스도의 몸은 또한 모든 지체들을 위한 제한이다. 우리는 다른 형제자매들과 함께 섞이기를 배워야 한다. 개인주의적인 기질들과 특이함은 교회 안에 여지가 없다. 또한 모든 지체는 다른 지체들의 기능과 분량을 존중해야 하며 자기 자신의 기능을 발휘하는 데 신실해야 한다. 따라서 다른 이들이 할 수 있는 것에 대해 질투나 야심이나 욕심이 없을 것이다 — 고후 10:13-14, 갈 5:25-26, 대하 26:16-21.
- H. 주님께서 바울에게, 또한 바울 안에 그분 자신을 계시하셨던 그 날, 주님은 바울에게 몸의 계시와 몸의 원칙을 보여주셨다 — 행 9:1-17.
 - I. 우리의 생활과 봉사는 몸 안에, 몸을 통해, 몸을 위해 있어야 한다. 주님께서 우리를 개인주의에서 구출하시어 몸 안에 있게 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누리고 체험한 것에 기초한 사역을 가지고 그분의 몸을 섬길 수 있기를 바란다.

III. 우리는 분열적인 것에서 생명 안에 구원받아야 한다. 우리가 주님의 회복 안에서 대하는 많은 문제들의 내재적인 본성은 요한복음 17장에 계시된 진정한 하나에 대한 합당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 A. 하나의 첫째 단계는 아버지의 이름과 아버지의 신성한 생명에 의한 하나이다. 아버지의 이름은 아버지 자신, 곧 생명의 근원이자 하나의 근원이신 아버지 자신을 가리킨다 — 요 17:6-13, 5:26, 43.
1. 우리는 반드시 아버지를 생명과 축복의 근원으로 취해야 한다. 우리는 결코 우리의 인간 생명에 의해 살지 말고 우리의 모든 것을 포함한 아들의 자격을 누리기 위해 우리의 영 안에 있는 아버지의 신성한 생명에 의해 살아야 한다 — 비교 마 14:19, 롬 11:36, 요 6:57, 롬 8:15-16.
 2. 아버지의 생명과 아버지의 본성이 하나의 요소이다 — 요 17:2, 비교 엠 1:4-5, 히 2:10-11, 고전 6:17.
- B. 하나의 둘째 단계는 거룩하게 하는 말씀의 실재 안에 있는 하나이다 — 요 17:14-21.
1.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며(요 17:17), 진리는 삼일 하나님이다(요 14:6, 요일 5:6 하). 말씀의 실재로 거룩하게 되는 것은 삼일 하나님 자신으로 거룩하게 되는 것이다.
 2. 진리인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을 세상에서 성별하고(요 17:17) 세상의 통치자, 곧 악한 자에게서 지킨다(요 17:15).
 - a. 아버지의 실재의 말씀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순수하게 하며 혼합된 세상에서 구출하여 하나님께로, 곧 순수하신 하나님께로 분별한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을 수록, 더욱더 순수하게 된다 — 시 12:6, 119:140.
 - b. 아버지의 거룩하게 하는 말씀은 우리의 하나의 수단이며, 우리를 하나의 영역 안으로 이끈다 — 요 17:21, 엠 5:26.
- C. 하나의 셋째 단계는 과정을 거치시고 연합되시고 합병되신 삼일 하나님의 표현을 위한 신성한 영광 안에 있는 하나이다 — 요 17:22-24.
1. 모든 믿는 이들의 신성한 영광 안에서의 하나는 아버지의 생명과 본성을 가지고 있는 아들의 자격이 표현된 안에서의 하나이다 — 요 17:22, 5:26.
 2.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표현이다. 이러한 신성의 빛나는 표현은 우리를 우리의 자아에서 구출하여 우리를 온전히 하나로 만든다 — 비교 계 21:11.
 3. 하나의 이러한 단계에서 자아는 완전히 부인된다. 우리는 반드시 야심과 자기를 높임과 의견과 관념들을 포함한 우리의 자아에서 구원받아야 한다 — 요 17:21-23, 롬 5:10, 고전 1:10-13, 요삼 9.
 - a. 우리가 자아를 포기하고 자아를 잃어버리고 영으로 돌이킨다면 즉시로 몸의 실재 안에 있게 될 것이다. 우리가 우리의 본성을 가진 우리의 생명에 의해 살면서 우리 자신을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은 없을 것이다. 우리 자신의 표현이 있을 때 분열이 있다 — 엠 2:22, 요 16:13.
 - b. 아버지의 본성과 아버지의 생명 안에서 살고 행함으로 아버지를 표현하는 것이 영광이며 이 영광 안에서 우리 모두는 하나이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영광에서 영광으로'의 생활이어야 한다 — 고후 3:16-18.
- D.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를 보존하려면 우리는 삼일 하나님과 끊임없이 연합되어 (타고난 사람, 사탄이 있는 세상, 자아를 무효화함으로) 주님의 갈망을 만족시켜야 한다 — 엠 4:1-6.

그리스도를 살고 그리스도를 표현하도록 변화되기 위한 비결이신 그리스도를 배움

일상 생활에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조언을 다른 사람들에게 구해서는 안된다. 왜냐하면, 우리는 안에 영을 가지고 있고 그 영이신 주님이 우리 영 안에 거하시며 우리와 매우 가까이 계시기 때문이다. 우리는 모든 것에 대하여 전화나 팩스를 사용할 필요 없이 그분께 여쭙어 볼 수 있는데, 이는 그분이 우리 안에서 즉시 우리와 대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당신은 모든 것에서 그분과 대화하고 의논할 수 있다. 주님의 말씀은,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빌 4:6)고 말한다. 그러므로 만일 당신에게 문제가 있다면, 당신은 단지 그분께 말해야 한다. 그분은 바로 당신 안에 계시며 당신과 함께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계신다. 삼일 하나님—아버지, 아들, 그 영—은 우리 안에 계시며, 우리를 어렵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변호자, 위로자, 지지자가 되신다. 나는 항상, 『오 주님, 이제 나는 산책을 하려 합니다. 나를 부축하시며, 북돋우시고, 강화시키소서.』라고 기도한다. 이것이 주님을 마시는 길이다. 이렇게 하여 나에게는 근심이 전혀 없다. 근심이 올 때마다 당신은, 『오 주님 이 근심은 당신의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나는 근심을 당신께 드립니다. 당신이 나를 위하여 그것을 감당하시기 때문입니다.』라고 말해야 한다. 따라서 당신은 주님의 요소를 당신 안으로 받아들이고, 신진대사는 당신 안에서 지속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그 결과 당신을 통하여 외적으로 표현되는 것은 그리스도이시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사는 것이다. 이 비결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사는 것을 어려운 것으로 생각한다. 사실상, 당신은 다만 지속적으로 주님과 말하는 것을 실행할 필요가 있다. 그럴 때 당신은 자연스럽게 그리스도를 살 것이다. (하나님의 구원의 유기적인 방면, 63-64 쪽)